

OPEC, 국제유가 50-60달러 목표

업스트림 투자와 경제성장 견인 수준 ... 70-80달러 수준 원치않아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국제유가를 합리적 수준인 배럴당 50-60달러 선에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OPEC의 리서치 기구 책임자 하산 카바자드가 3월22일 밝혔다.

카바자드는 OPEC 의장인 모하메드 알-함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석유장관을 수행해 타이 방콕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배럴당 50-60달러는 원유의 생산부문인 업스트림 투자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OPEC은 국제유가가 2006년 7월 기록했던 배럴당 최고가 78.40달러 수준으로 되돌아가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합리적인 배럴당 50-60달러 수준이 향후 몇년간 유지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카바자드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분야 모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믿으며, 업스트림 쪽에서만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1000억달러 가까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6>